

광주·전남 지방의회 하반기 의장단 선출 더민주 '세력'·국민의당 '실리' 챙겼다

도의회·26개 시군구의회 의장 '더민주 독식'→18 : 8 배분

재선 출신 12명 최다...여성 의장 1·부의장 7명 거센 '女風'

광주시의회·남구의회 오늘 선거

광주시의회와 남구의회를 제외한 전남 도의회와 26개 시·군·구의회 하반기 의장단 선출이 마무리됐다. <관련기사 3면> 이번 광역·기초의회 선거결과를 보면 양적인 측면에선 더불어민주당이 승리를 거뒀지만 질적인 부분에선 국민의당이 오히려 실리를 챙겼다는 평가다. 광주·전남 시·도의회와 기초의회는 그동안 더민주가 다수로 의장단을 독식해왔다.

국민의당이 선전한 지난 4·13 총선의 여파가 하반기 광역·기초의회 원 구성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특히 여성 의원들의 약진이 두드러진 가운데 대선 중심의 의장단 구성 관행을 깨는 '초·재선의 반란'이 일어난 점도 주목할만한 점이다.

11일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 각 시·군·구의회에 따르면 이날 현재 29곳 광역(2곳)·기초의회(27곳) 중 27개 의회 하반기 의장단 선출이 마무리됐다.

의장 선거에선 더민주가 1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국민의당 8명, 무소속 1명 등의 순이었다. 부의장 선출에선 더민주(20명)·국민의당(6명)·새누리당(1명)·무소속(1명) 등이었다.

의장과 부의장 자리를 차지한 수를 합하면 더민주(38명)·국민의당(14명)·무소속(2명)·새누리당(1명) 등이다.

더민주가 광주시 서구와 북구를 비롯한 순천·나주·화순·광양·곡성·구례·담양·함평·영광·장성·고흥·해남·완도·진도·무안의회 등 17곳에서 의장과 부의장 자

리를 싹쓸이했다.

국민의당은 광주시 동구와 목포·여수·장흥의회 등 4곳에서 의석을 독차지했다. 보성에선 무소속이 의장·부의장 두 자리를 사수했다. 나머지 광주시 광산구의회에선 국민의당과 새누리당이 의장과 부의장을, 강진·영암·신안의회에선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각각 한 석씩 챙겼다.

광역의장 선거인 전남도의회 의장 선거에선 국민의당이 차지했으며 부의장 선거에선 국민의당과 더민주가 각각 한 자리씩 가져갔다.

연령별로는 광역·기초의회 의장단 기준 60대가 14명으로 가장 많았다. 50대는 13명이었으며, 30대·40대·70대는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고참급 중진 위주의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초·재선의원들의 약진은 눈여겨볼 대목이다. 이번 광역·기초의회 의장단 선거에선 재선출신 의원들이 12명으로 가장 많았다. 3선(8명)·초선(3명)·4선(1명)·5선(1명)·6선(1명)·7선(1명)이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이번 선거에선 여풍(女風)이 거세게 불었던 점도 특징이다. 장흥군의회의원 선 국민의당 김복실 의원이 의장으로 선출됐고 목포 등 7개 시·군의회의원 여성 의원이 부의장 자리를 차지했다.

이번 선거결과를 놓고 보면 지난 4·13 총선 여파가 사실상 이어지면서 일당 독재 체제에서 양당체제로 재편됐다는 점이다. 이는 하반기 의회 운영의 새로운 변수가 될 전망이다. 한편 광주시 남구의회는 12일 의장단 선거를 치를 예정이다.

/이종행·김형호기자 golee@kwangju.co.kr



장마철 방역 광주시 서구보건소 직원들이 11일 광주시 서구 양3동 주택가에서 각종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을 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

"광주, 주거환경 좋지만 먹고살기 힘들어"

지역민들은 삶에 얼마나 만족할까. 광주시민은 자연이나 주거환경에는 만족하지만 소득 등 경제적으로는 힘들어한다는 설문결과가 나왔다. 또 시민들은 광주가 일자리를 구하기 쉬운 도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나타냈다. <관련기사 6면>

11일 광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가 내놓은 '광주시민의식조사 결

과'에 따르면 '삶의 질에 대한 영역별 만족도'를 묻는 문항에서 웰빙(4.92), 자연환경(4.85), 주거환경(4.82) 순으로 시민들의 만족도(7점 척도·평균 4.62점)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학교 교육(4.16), 소득수준(4.28), 여가생활(4.56), 일자리(4.62) 순으로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돼 타 지역에

광주시민 의식조사 "일자리 많은 도시 되었으면"

비해 열악한 광주의 경제환경적 여건이 설문문에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협의회는 지난 5월23일부터 2주간 광주 시민 66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희망하는 도시상'을 묻는 항목에서는 가장 많은 25.7%(171명)의 시민들이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고 일자리를 구하기 쉬운 지역'을 선택, 향후 산업발전 육성

을 위한 광주시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해석이다. '광주하면 떠오르는 이미지'에 대해서는 '민주인권평화의 도시'(59.8%), '아시아문화중심도시'(20.9%), '시민중심도시'(5.3%) 순으로 나타났다.

'광주가 가꾸어가야 할 이미지'에 대해서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28.9%), '시민중심도시'(19.8%), '민주인권평화의 도시'(19.6%) 순으로 답해 민주인권평화도시의 현재 이미지보다 문화중심도시로의 변화 요구가 많았다. /김경민기자 kki@

알립니다

아로마라이프쥬

제6회 무등기 사회인 야구대회

32개팀 두 달간 열전

9월 4일 개막

광주일보사가 광주·전남 지역 사회인 야구 활성화를 위해 '제6회 무등기 사회인야구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대회에는 광주·전남 사회인 야구 리그로부터 추천 받은 32개팀이 참가하며, 경기력을 기준으로 '무등'·'광일' 2개 그룹으로 나눠 토너먼트 방

식으로 승부를 가리게 됩니다. 올해도 아름다운 가치를 창조하는 기업 아로마라이프(회장 이학재)가 광주일보와 함께 대회를 진행합니다. 광주·전남 사회인 야구의 '가을잔치'인 이번 대회에 야구를 사랑하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대회기간 : 2016년 9월 4일 ~ 11일(매주 토·일요일)
- 대회장소 : 광주·전남 지역 지정구장
- 경기방식 : 무등·광일 토너먼트
- 시상 : 각 토너먼트 우승, 준우승, 공동3위, 감독상, 최우수선수상, 우수선수상 등
- 대회 및 출전팀 정보 : 광주일보 홈페이지
- 문의 : 광주일보 문화사업국(062-220-0541)

光州日報社

바람에 날아간 '올림픽 티켓'

100m 허들 광주시청 정혜림 출전 기준기록·한국新 세우고도 뒷바람 때문에 공인 못 받아

한국 여자 육상의 리우올림픽 출전권이 바람과 함께 사라졌다. 여자 100m 허들 종목의 한국 신기록도 바람에 날라갔다.

한국 여자 100m 허들의 간판으로 꼽히는 정혜림(30·광주시청·사진)이 야속한 바람에 끝내 울음을 터트렸다.

정혜림은 지난 10일 일본 홋카이도에서 열린 '제 29회 남부메모리얼 육상경기대회' 여자 100m 허들 결승에서 12초 91의 기록으로 결승선을 통과, 올림픽 기준기록(13초00)을 넘어섰다. 한국 기록(13초00)도 갈아치웠다. 앞서, 그는 예선에서 12초 86이라는 스피드를 선보이며 한국 육상계의 기록 경신이라는 기대감을 키웠다.

하지만 두 기록 모두 인정받지 못했다. 뒷바람이 강하게 불었기 때문이다. 정혜림이 결선 레이스를 펼쳤을 때는 뒷바람 초속이 4.3m였다. 예선 경기 당시



바람속도는 초속 3.1m였다. 국제육상연맹은 바람에 민감한 종목의 기록은 뒷바람 평균 초속이 2m 이내일 때만 공인한다.

그는 올 상반기 5개 국내대회에 모두 나서 1위를 놓치지 않았다. 하지만 올림픽 기준기록을 넘어설지 못하고 엔트리 제출 마감일(11일)을 하루 앞둔 10일, 일본까지 건너가 경기에 나섰다. 하지만 야속한 바람 탓에 끝내 리우행 티켓을 잡지 못했다. /김지우기자 dok2000@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 605-1114 대학원 (062) 605-1115

세상의 모든 빛을 압도하는
눈부신 자신감
헤라 UV 미스트 쿠션

언제 어디서나 찬란한 빛을 보여주세요
새로운 울트라 미립 분산 기술이
한 번의 터치로 피부를 밀착시켜
들뜸없이 완벽하게, 더 촉촉하고 섬세하게-
건강한 윤기분홍 피부를 선사합니다

HERA

• 유행병확이나 아노레 카운셀러를 통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고객센터: 080-023-5454(수신자 요금부담) www.hera.co.kr